

이태검 감독 “힘들 때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떠올렸으면”

유다인·오정세 주연...오는 28일 개봉

“우연히 본 기사로 영감 받아 시나리오 써”

차가운 송전탑, 극 중 ‘정은’의 현실 상징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 영화 제목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를 연출한 이태검 감독은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나. 그때 나는 나 자신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영화 제목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감독은 개봉을 앞두고 “밤새 열심히 일한 다음 아침을 맞는 기분이다. 날씨가 어떻게 몰라서 두렵기도 하다”고 웃었다.

그는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영화는 역경을 다루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결국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은 ‘정은’(유다인)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버텨내는 이야기를 그렸다.

정은은 어느 날 갑자기 권고사직을 마주하게 된다. 이를 거부하던 중 하청업체로 1년 동안 파견을 가면 다시 원형으로 복귀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정은은 결국 파견을 결정하지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일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감독은 우연히 보게 된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

그는 영화 제작이 무산돼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사무직 중년 여성이 지방 현장직으로 부당 파견됐는데 그곳에서 결국 버텨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그는 “힘든 시기였는데, 기사를 보고 감정이입이 됐다”며 “작품 완성엔 연감생심이었고 글이라도 먼저 써보자 편을 잡았다”고 돌아봤다.

“초고를 쓰고 가만히 제목을 생각해 봤죠. 스스로에게 물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내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내 목줄을 타인이 쥐고 있다고 해도 나는 나를 긍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이 감독은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직장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정은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면 실의와 좌절에 빠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왔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 중 정은이 파견 간 하청업체의 업무를 송전탑 수리 보충이다. 자기 일이 관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소장은 그것은 자신의 일이라며 정은이 할 일을 없다고 선을 긋는다. 정은은 손이 부족한 현장 일을 자원하지만, 높이 솟아있는 송전탑을 올라다보며 아찔함과 공포를 느낀다.

이 감독은 가장 힘든 순간에 처하게 된 정은의 상황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했다.

그는 “정은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송전탑을 만났다”며 “송전탑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의외였다. 그렇게 굵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목적함과 차가운 질감 그리고 밑에서 위를 볼 때의 아찔함 이런 부분들이 정은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극복하기 힘든 구조물이잖아요. 옆에서 보면 불규칙한 거미줄 같기도 해요. 여기를 누군가는 올라가는데, 송전탑을 오르는 게 우리 삶과 닮았고 극복할 현재라고 생각했죠.”

이 감독은 실제 송전탑에 오르는 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을 받았다. “그분들의 고초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명(귀울림)은 물론 영화 속 대사로도 나오는 (송전탑 노동자는) 두 번 죽는다. 한번은 감전으로, 한 번은 낙하로”라는 말도 들었죠. (영화로) 실제화하는 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죠. 정말 감사해요.”

“유다인·오정세, 열정 컸다...함께 논의하며 자양분 돼”

유다인과 오정세 배우의 연기에는 신뢰를 드러냈다. 유다인은 주인공 정

은 역을 맡아 절제된 연기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배우’ 오정세 역시 이 영화로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다.

이 감독은 “정은은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에 많은 갈등이 있고 잠재된 연기가 필요했는데, 유다인 배우가 훌륭하게 소화했다”며 “오정세 배우가 맡은 ‘막내’ 역은 착함이 있지만 이를 표현할 시간조차 없이 세 딸을 위해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타인의 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 묘한 연기를 잘 표현했다”고 칭찬했다.

특히 극 중 유다인과 오정세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해고와 죽음을 논하는 장면은 두 배우와 고민 끝에 완성했다.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인데, 그 대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두 배우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자양분이 됐어요. 두 배우에게 고맙죠.”

송전탑 촬영은 교육장에서 안전하게 이뤄졌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는 주의했다. 이 감독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배우들의 열정이 컸다”며 “1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장비를 지니고 촬영해야 했는데, 마다하지 않고 하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송전탑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만큼 실사의 결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는 “약자의 현실을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자는 게 첫 번째였다”며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영화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약자로서 현재 처한 상황이 특별



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으로 왜곡되지 않게 또 최대한 사실감 있게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현실이 바닥에 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소극적인

것 같지만 (버텨내는 게) 최대의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했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오는 28일 개봉한다.

뉴스

‘미쓰백’ 4개월간 대장정 최종회는 비대면 콘서트로

내일 오후 11시에 방송

MBN 예능 프로그램 ‘미쓰백’이 비대면 콘서트로 막을 내린다.

26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미쓰백’ 최종회에서는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미쓰백 언택트 콘서트’가 펼쳐진다.

‘미쓰백’은 가수 데뷔를 꿈꾸던 시절부터 무대에서 멀어져야만 했던 순간까지 진정성 가득한 사연은 물론, 매 경연마다 멤버들의 노력을 담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쓰백’ 멤버들이 흥과 기를 아낌없이 분출했던 무대들을 선보인다. 4개월간 선의 경쟁을 펼친 첫 인생 곡 ‘투명소녀’부터 ‘오르락내리락’ ‘어부바’ ‘탄타라’ ‘달콤’ 등의 무대가 모두 소환된다. 새 단체곡 ‘피날레’와 수빈의 솔로곡 ‘사인’도 공개된다.

멤버들은 경연을 통해 일취월장한 실력을 드러낸다. 이에 ‘미쓰백 언택트 콘서트’에서는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한 멤버들의 무대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다.



“지금 ‘그알’이 중요한게 아냐”...김새롬 사과 “경솔 행동”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서 ‘정인이 사건’ 후속편 방송

방송인 김새롬이 흡소피 방송 중 S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실연해 사과했다.

김새롬은 23일 오후 11시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와 동시간대에 흡소피 방송을 진행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방송에서 논란에 휩싸인 임영아 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방송했다.

김새롬은 이날 흡소피 방송 중 판매 중인 상품을 강조하듯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느냐”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냐”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김새롬의 인스타그램에 항의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김새롬은 다음날인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금 전 마친 생방송 진행 중 타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언급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

에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주제가 나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또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나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질타와 댓글을 새겨며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선고 공판, 오는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황정신성 수면마취제를 삼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희성)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은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체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에토미데이트를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빈 “예진씨에게 고맙다”...APAN 스타 어워즈 대상

손예진, ‘KT Seezn 스타상’ 수상

배우 현빈이 올해 ‘APAN 스타 어워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열린 ‘2020 APAN 스타 어워즈’에서 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대상을 탄 현빈은 “2021년의 시작을 이렇게 큰 상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올 한해를 더 멋지게 잘 꾸며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확이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 예진씨에게 고맙다”며 “예진 씨가 잘 빛내면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리정혁이 더 멋지게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배우 김승우의 단독 MC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배우 중심의 시상식으로 연기력 지평도, 인기도, 호감도,

드라마 시청률 등 모든 심사 기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 공효진, 김희애, 김혜수, 박서준 등이 대상 후보에 올랐고 최종 심사 끝에 현빈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은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열연한 강하늘, 여자 최우수연기상은 SBS TV 금토드라마 ‘엘리스’에서 완숙된 연기를 선보인 김희선이 차지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훈훈한 커플로 출연한 이상엽과 이민정이 연속극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tvN 주말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폭발적인 연기력을 입증한 서예지가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던 박혜

준이 남자 우수연기상을, ‘한번 다녀왔습니다’의 이상엽과 MBC TV 일일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의 심이영이 연속극 부문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은 오정세(SBS TV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tvN 주말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명민(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김선영(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SBS TV 금토드라마 ‘편의점 셋별이’)이 각각 남자 연기상과 여자 연기상을 수상했다.

신인상은 JTBC 월화드라마 ‘18 어게인’의 이도현, KBS 2TV 월화드라마 ‘조선 로코-녹두전’의 장동윤,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전미도에게 돌아갔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 역과 분단의 현실을 뛰어 넘어 사랑을 키우는 ‘윤세리’ 역을 맡은 손예진이 ‘KT Seezn 스타상’을 받았다.